

연예뉴스 HOT 3

뮤지컬 '케이팝', 올 가을 뉴욕 브로드웨이서 공연

케이(K)팝을 주제로 한 뮤지컬이 올 가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린다. 3월 31일(한국시간) 뮤지컬 '케이팝' 제작진은 뉴욕한국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드웨이 극장인 서클인더스퀘어 시어터에서 10월 13일 프리뷰, 11월 20일 첫 공연을 연다"고 밝혔다. '케이팝'은 슈퍼스타들이 하룻밤의 특별한 콘서트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이야기를 그린다.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루나가 출연한다. 조운중 뉴욕한국문화원장은 "인기 많은 한국 문화의 일부를 브로드웨이에 올릴 수 있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여정 '파친코' 공개 후 원작소설도 덩달아 인기

윤여정·이민호 주연의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가 최근 공개되면서 원작소설도 인기다. 3월 31일 온라인서점 알라딘은 "22일부터 29일 일주일간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 1·2권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배 늘었다"고 밝혔다.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1·2위, 종합 순위에서 3·4위에 각각 올라 폭발적인 관심을 실감케 했다. 40대 독자가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파친코'는 재일 한국인 가족의 4대에 걸친 이야기를 그린다. 2017년 미국에서 출간돼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자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다.

홍진경, 소외 계층 아동 위해 1억원 쾌척

방송인 홍진경이 소외 계층 아동들을 위해 1억 원을 쾌척했다(사진). 3월 31일 국내 구호 단체 희망조약들에 따르면 홍진경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외 계층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부왕전천재 홍진경'을 위해 특별 제작한 한정판 굿즈의 수익금 16000만 원과 더불어 개인 차원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재원 희망조약들 이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준 '공부왕전천재 홍진경'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9@donga.com

데뷔 7년만에 '신사와 아가씨'로 뜬 이세희

“가는 곳마다 ‘단단’이 응원…꿈만 같죠”

식당 가면 어김없이 반찬 듬뿍 엄만 날 마트 데리고 가서 자랑 단단이와 닭은점? 씩씩한 성격 목표? 그저 연기 오래하는 것뿐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신데렐라'가 된 이세희. 요즘 어딜 가도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응원을 해주는 주위의 사람들 덕분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가족엔터테인먼트

“지금 이 순간도 꿈만 같아요!” 연기자 이세희(31)는 요즘 방송가 '신데렐라'로 통한다. 2015년 데뷔해 무려 7년 만에 드라마 주연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다. 3월 27일 종영한 KBS 2TV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로 최고 시청률 38.2%(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요즘 안방극장에서 보기 드문 성과도 거뒀다. 가수 나윤권의 '364일'의 꿈 뮤직비디오로 연예계에 발을 내딛은 이후 조·단역에 머물다 첫 주연 드라마로 그야말로 '뺑' 타진 셈이다. 3월 31일 서울 광진구 가족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난 이세희는 "종영한 지 5일이 지나도록 여태 꿈에 빠져있는 기분"이라며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딜 가도 단단이 알아봐”

극중 박단단 역을 연기하며 52부작 드라마를 이끌었다. 극중 입주 가정교사로 자신이 돌보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재벌 이영국 회장 역 지현우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렸다. 중장년 시청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주말드라마의 힘을 "일상에서 여실히 실감" 중이다.

“요즘 어딜 가도 '단단이 아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식당에 가면 종업원 아주머니께서 반찬을 이만큼이나 싸줘

요. 어머니께서 특히 좋아해요. 고향인 충남 천안에 가면 저를 데리고 마트 같은 곳을 그렇게 가세요. 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 어머니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뿌듯해요.”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 자리를 꿰찬 순간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로 남았다. 로맨스 파트너인 지현우를 비롯해 악역 박하나 등은 “든든한 응원군”이 됐다. “지현우 선배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하나 인니는 '내 신인 때를 보는 것 같다'면서 물심양면으로 잘해주셨어요. 팀 모두가 맛있는 음식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어 서로의 집에 마구마구 소포를 보낼 만큼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이상형은 대화 잘 통해야!”

시청자 사이에서는 극중 40대인 이영국과 20대인 박단단의 로맨스에 대해 '나이 차가 많이 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없지 않았다. 이에 이세희는 “단단이는 자신을 향한 이영국의 사랑만 봤을 것”이라면서도 “나라면 결혼에 골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며 웃었다.

“실제 이상형은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예요. 전화 통화 5분 만에 하루의 힘들음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상대였으면 좋겠어요. 찾기 어렵겠죠? 하하하! 단단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씩씩하고 굳센 성격이라는 거예요. 저도 집안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홀로 열심히 일했어요. 어찌 보면 단단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것 같기도 해요.”

26세 무렵 치위생사 자격까지 뚫었지만 결국 “오래도록 마음에만 담아왔던 꿈”을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다. “사소한 것에도 금세 행복함을 느끼는” 긍정적인 마음 가집이 7년간 고군분투해온 비결이다.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연기를 계속하는 것! 야망도, 계획도 없어요.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주어진 일마다 최선을 다해야죠. 제 감정을 시청자에게 제대로 전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을 더 자주 만끽하고 싶어요. 최대한 덜 후회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살아갈래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美 타임 “방탄·방시혁, 음악산업 완전히 바꾼 최강자”

나란히 표지 모델로 내세우며 소개 '하이브' 영향력 100대기업 선정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이들을 키운 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이사회 의장 겸 총괄프로듀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사진)를 장식했다. 타임은 이들을 나란히 모델로 내세우고 “음악 산업을 완전히 바꾼 최강자”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으로 하이브를 꼽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타임은 3월 31일(한국시간) “한국의 하이

브 음악 산업을 재창조하고 있다”며 방시혁 의장과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표지에 담았다. 타임은 작년 12월에도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해 표지모델로 내세웠고, 2018년에도 모델로 삼았다.

타임은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이 BTS의 도움을 받아 음악비즈니스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팝의 최강자”라고 보도했다. 이어 “하이브는 단순한 음반사나 연예 매니지먼트사가 아니다”고 ‘100대 기업’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하이브와 함께 애플, 리비안, 화이자, 디즈니, 틱톡, 발렌시아가, 스포티파이 등도 ‘100대 기업’ 목록

에 올랐다.

타임은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을 발굴한 ‘소규모 아티스트 인큐베이터’에서 나아가 디즈니처럼 지식재산권(IP)을 갖춘 ‘전방위 사업체’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소속사 이타카 홀딩스 인수, NFT(대체불가능토큰) 사업 진출, 소셜미디어 팬 커뮤니티 위버스 운영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방 의장은 “우리의 비전은 음악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충청남도), 사과(충청남도), 브로콜리(충청남도)
•원산지 : 양배추(충청남도), 사과(충청남도), 브로콜리(충청남도), 산사나무열매(충청남도), 매실(충청남도)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